



천년의 빛... 고려청자의 강진

강 옥
자유기고가

남도 답사 일번지 강진군(康津郡)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해 있다. 해남군과 장흥군 사이에 놓인 이 군은 북쪽에 높이 809 미터의 월출산이 영암군과 자연의 울타리를 이루고 남쪽으로 다도해를 사이에 두고 완도군의 완도, 고금도 같은 섬과 마주 보고 있다. 온화한 기후의 강진군은 탐진강을 중심으로 질편한 들녘이 펼쳐져 있어 쌀은 그 질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쪽빛 바다의 강진만이 남쪽 해안을 뚫고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 해산물도 풍부한 고장이다.

강진군의 땅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영암 땅에 들기도 하고 장흥 땅에 들기도 하여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 태조 때인 1417년, 남해안 지방에 일본 해적의 노략질이 부쩍 잦아지자 그것을 막으려고 광산군 송정읍에 두었던 병마 도절제사영을 이곳으로 옮김으로써 강진이라는 땅 이름이 생겨났다. 곧 전

라도 병영이 영암 땅에 들었던 도강 마을에 들어서자 장흥 땅에 들었던 탐진 고을을 끝어다 두 고을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강진’이라고 불렀다.

‘북 개성 남 병영 상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진 사람들은 장사로 유명하였다. 강진은 병영이 들어서면서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큰 군사도시가 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병영에 드나들던 고을 수령과 병사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벌여 돈을 벌었다. 또한 강진군은 예로부터 ‘부자고을’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지주가 많이 살아 천석꾼이 부자가 서른명이 넘었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동경에 유학한 학생의 수가 열명이었으며 서울에 유학한 학생의 수도 서른명이 넘었다고 한다.

월출산의 골짜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탐진강의 가느다란 한 웃줄기가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일대를 지나 장흥 지방으로 넘어갈 듯 흘러들었다가 장흥 지방 일대를